

2001. 10. 14. 경남 교육청

01 다음 중 표준 발음법에 맞는 것은?

- ① 텃밭을 갈아서[틔바츨 가라서]
- ② 장미꽃이 피어 있는[장미꼬시 피어 인는]
- ③ 빵을 잘라 먹는[빵을 찢라 멩는]
- ④ 부엌에서는 밥물이 넘치고[부어케서는 밤무리 넘치고]
- ⑤ 방 청소를 깨끗이 하고[깨끄치 하고]

① 텃밭을[틔바틀] ② 장미꽃이[장미꼬치] ③ 잘라 먹는[잘라 멩는] ⑤ 깨끗이[깨끄시]

다음 문장 중 중복이 없이 어법에 맞는 것은?

- ① 형법 법규의 적용은 소급하여 올라갈 수 없다.
- ② 나는 어제 전입한 그에게 친숙함을 느낄 수 있었다.
- ③ 사방에 들려 오는 터지는 폭음 소리
- ④ 문소리에 달려 나가 보니 그는 아니 오고 지나는 과객이었다.
- ⑤ 데카르트의 방법 사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회의하고 의문을 품는 데 있다.

① 소급(溯及) : 과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영향이나 효력을 미침.
③ 폭음(爆音) : 폭발물이 터지는 소리 ④ 과객(過客) : 지나가는 나그네
⑤ 회의(懷疑) : 의심을 품음.

03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먹는데에너무집착하는것은교양인다운모습이아니기에

- ① 먹는데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교양인 다운 모습이 아니기에
- ② 먹는 데에 너무 집착하는것은 교양인다운 모습이 아니기에
- ③ 먹는 데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교양인다운 모습이 아니기에
- ④ 먹는데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교양인다운 모습이 아니기에
- ⑤ 먹는 데에 너무 집착 하는 것은 교양인다운 모습이 아니기에

먹는 데(의존 명사)에 너무 집착하는 것(의존 명사)은 교양인다운(‘답다’는 형용사 파생 접미사임.) 모습이 아니기에

의존 명사는 띄어 쓰고 조사와 접미사는 붙여 쓴다.

04 ㉠~㉣의 한자가 모두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까마득한 날에 / 하늘이 처음 열리고

㉠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山脈)들이 / 바다를 연모(戀慕)해 휘달릴 때에도

㉡ 차마 이 곳을 범(犯)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光陰)을 / 부지런한 계절(季節)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 ㉢ 매화(梅花) 향기(香氣) 홀로 아득하니

㉣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千古)의 뒤에 / 백마(白馬) 타고 오는 초인(超人)이 있어

㉤ 이 광야(曠野)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나)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 ㉠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06에서 시적 자아의 내면적 의지가 가장 잘 표현된 시구는?

① ㉠

② ㉡

③ ㉢

④ ㉣

⑤ ㉤

㉠은 생명의 인기척조차 없었던 광야의 원시성을 나타내고, ㉡은 광야의 신성성을 나타내며, ㉢은 현실적 시련을 견디는 지조 있는 모습을 나타낸다. ㉣은 조국 광복에 대한 염원과 작가의 희생적 의지를 나타낸 표현이며, ㉤은 확신에 찬 미래에의 전망을 읊고 있다.

(가) 이육사의 '광야'

절박한 현실 상황에서도 지사적인 불굴의 의지로 조국 광복의 미래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노래한 저항시이다. '눈(현실적 고난)', '매화(지조와 절개)', '가난한 노래의 씨(희생 정신)' 등 상징적인 시어와 '~뿌려라', '~하리라'와 같은 강인한 어조를 통해 고통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정신을 표현하고 있다.

(나) 이육사의 '절정'

암담한 식민지 시대의 절망적 상황 속에서 넉넉한 관조의 정신으로 그것을 초극하려는 강인한 의지를 보여 준 저항시이다. 화자는 자신의 감정을 고도로 절제하고, 극한적 상황에 대한 인식을 '채찍', '북방', '고원', '서릿발' 등의 차갑고 폭력적인 이미지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시적 효과를 강조시킨다. 그러나 화자는 이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자를 비롯한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자기 내면의 명상을 통해 부정적 현실과 맞서 싸우는 치열한 의지를 보여 준다.

07 ㉠의 상황과 의미가 유사한 시어를 (가)에서 찾으려면?

① 하늘 ② 바다 ③ 강물 ④ 눈 ⑤ 매화 향기

㉠은 몹시 절박한 극한 상황을 의미한다.

③은 조국의 역사·문명을, ④는 가혹한 시련을, ⑤는 광복의 기운을 의미한다.

08 다음 () 안에 알맞은 판소리 장단은?

()

“가난이야, 가난이야, 원수년의 가난이야. 잘 살고 못 살기는 묘쓰기으 매였는가? 북두칠성 님이 집자리의 떨어칠 적에 명과 수복을 점지하는거냐? 어떤 사람 팔자 좋아 고대 광실 높은 집에 호가사로 잘 사는데 이년의 신세는 어찌하여 밤낮으로 벌었어도 삼순 구식을 헐 수가 없고, 가장은 부황이 나고, 자식들은 아사지경이 되니, 이것이 모두 다 웬일이냐? 차라리 내가 죽을라네.” 이렇듯이 울음을 우니 자식들도 모두 따라서 우는구나.

- ① 진양조
- ② 휘모리
- ③ 중중모리
- ④ 자진모리
- ⑤ 엇모리

이 글은 ‘홍보가’ 가운데 ‘가난 타령’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와 같이 애절하고 서정적인 대목에는 가장 느린 장단이면서 슬픈 느낌을 주는 ‘진양조’가 적합하다.

판소리 장단

진양조	가장 느린 곡조. 애연조(哀然調)로 슬프고 무거운 느낌을 준다.
중모리	중간 빠르기의 곡조로, 안정감을 준다.
중중모리	중모리보다 약간 빠른 곡조로, 흥취를 돋우며 우아하다.
자진모리	빠른 곡조로 섬세하면서도 명랑하고 차분하다.
휘모리	가장 빠른 곡조로 급박감을 준다.
엇모리	평조음(平調音)으로 평화스럽고 경쾌하며, 이질적인 장단이다.

다음 문장 중 높임 표현이 올바르게 된 것은?

- ① 부장님께서는 아들이 둘이다.
- ② 할아버지, 아버지가 왔습니다.
- ③ 선생님께서는 허리가 아프다.
- ④ 철수는 아버님이 있으시다.
- ⑤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계시했습니다.
- ① 부장님께서는 아드님이 두 분이시다.
- ② 선생님께서는 허리가 아프시다.
- ④ 철수는 아버님이 계시다(직접 높임).
- ⑤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10~11)

어느덧 갯가에 서 있는 수양버들이 그의 그늘을 시내 속에 깊게 드리우고, 나비들과 꿀벌들이 들과 산 위를 넘나들고, 뜰 안에 장미들이 그 무르익은 향기를 숨같이 부드러운 바람에 풍겨 보낼 때면, 너, 보리는 고요히 머리를 숙이기 시작한다.

온 겨울의 어둠과 추위를 다 이겨 내고, 봄의 아지랑이와 따뜻한 햇볕과 무르익은 그윽한 향기를 온몸에 지니면서, 너, 보리는 이제 모든 고초와 사명을 다 마친 듯이 고요히 머리를 숙이고, 성자(聖者)인 양 기도를 드린다.

다음(가)품을 내재적 방법으로 분석한 것은?

- ① 나도 보리처럼 꾸뚝하게 살아가야겠다.
- ② 보리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던데, 윗글의 작가는 보리를 보지 못한 사람이야.
- ③ 보리에 대해 잘 표현한 걸 보니 작가는 농촌에 살았군.
- ④ 자연물로부터 소재를 취하여 산문시적 구성으로 서정적으로 표현하고 있군.
- ⑤ 현실적 시련이 닥치더라도 보리처럼 겸손한 미덕으로 살 것을 주장하고 있군.

내재적 방법이란 일체의 문학 외적 정보를 배제한 상태에서 작품 자체만을 문제 삼는 방법으로, 언어를 중시하며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있는 작품의 구조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 형식주의 비평

①은 수용론(효용론)적 관점, ② ③은 표현론적 관점, ⑤는 반영론과 표현론의 복합적 시각을 보이는 외재적 방법에 의한 평가들이다.

11 이 작품의 밑줄 친 부분의 이미지와 상통하는 것은?

① 풀이 눕는다. /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 풀은 눕고 / 드디어 울었다. /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 다시 누웠다.

② 까닭 없이 마음 외로울 때는 / 노오란 민들레꽃 한 송이도 / 애처롭게 그리워지는데

③ 그림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 머언 먼 젊음의 뒀안길에서 /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④ 꺼질 듯 / 보드라운 / 황홀한 한 떨기의 / 아름다운 정적(靜寂) // 펼치면 일렁이는 / 사랑의 / 호심(湖心)아.

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 그는 나에게로 와서 / 꽃이 되었다.

밑줄 친 부분에서 ‘보리’는 겨울의 어둠과 추위, 시련과 고난 등을 강한 인내와 생명력으로 이겨 내고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고 있다.

③의 ‘꽃(국화)’은 봄과 여름의 시련과 방황을 거쳐 도달한 생의 원숙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주는 것으로, ‘보리’와 이미지가 유사하다.

①의 ‘풀’은 민중의 끈질긴 생명력을(김수영의 ‘풀’), ②의 ‘민들레’는 임의 현신, 그리움의 이미지를(조지훈의 ‘민들레꽃’), ④의 ‘꽃’은 신비로운 생명의 실체를(박두진의 ‘꽃’), ⑤의 ‘꽃’은 의미 있는 존재를(김춘수의 ‘꽃’) 의미한다.

한옥구의 ‘보리’

시련 극복의 기다림과 희망을 노래한 서정적 수필로, 보리의 일생을 통해 기다림과 희망을 가지고 시련을 이겨 내면 기쁨과 보람이 따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 12~13)

1876년 강화도에서 맺은 수호 조규(修好條規)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맺은 굳은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일본의 신의(信義) 없음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다. 일본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가는 실제에서, 우리 옛 왕조가 대대로 이룩해 물려온 빛나는 업적(우리 나라)을 식민지인 양 생각하고, 우리 문화 민족을 야만인으로 대우하여 다만 정복자의 쾌감을 욕심낼 뿐이요, 우리의 오랜 사회적 기반과 뛰어난 민족 정신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꾸짖으려는 것도 아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격려하기에 바쁜 우리는 일본을 원망하거나 탓할 겨를이 없다. 현 사태를 수습하기에 급한 우리는 옛날의 잘잘못을 들추어 따져볼 겨를이 없다.

12. 글의 내용과 다른 것은?

- ① 우리 민족은 오랜 역사를 가진 민족이다.
- ② 일본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해야 한다.
- ③ 우리는 감정에 치우쳐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 ④ 일본에 대해 대인의 품모로 관용을 베풀고 있다.
- ⑤ 우리는 자신을 채찍질하여 현재를 수습해야 한다.

제시된 글은 ‘기미 독립 선언서’ 중 우리의 자세와 소임을 밝힌 부분으로, 우리가 유구한 전통 문화 민족임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무신(無信)과 소의(少義)를 은근히 비판하고는 있으나, ②의 경우는 이 글의 쟁점과는 비교적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13. 글의 내용과 통하는 속담으로 옳은 것은?

- ① 닭 소 보듯, 소 닭 보듯 한다.
- ② 내 코가 석 자다.
- ③ 우물 안의 개구리
- ④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 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마지막 문단에 착안해서 볼 때, ‘내 코가 석 자다(자기의 곤란이 심해 남의 사정을 돌아볼 겨를이 없음).’와 가장 상통한다.

14. ㉠, ㉡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로 옳은 것은?

데 가는 더 각시 天天上상 白帛玉옥京경을 히 다 더 저문 날의 ㉠ <u>어와 네여이고</u> 내 얼굴 이 거동이 엇던디 날 보시고 나도 님을 미더 이럭야 교퓌야 반기시는 늦비치	본 듯도 혼더이고. 엇디혀야 離니別별하고 놀을 보러 가시논고. 내 스설 드러보오. 님 괴암즉 흥가마는 ㉡ <u>네로다 녀기실식</u> 군 뜨디 전혀 업서 어즈러이 구똥편디 네와 엇디 다투신고.
----------------------------------------------------------------------------------------------------------------------------	-------------------------------------------------------------------------------------------------------------------------------------

- ① ㉠ 경탄 - ㉡ 확신 ② ㉠ 한탄 - ㉡ 확신 ③ ㉠ 반가움 - ㉡ 반가움
- ④ ㉠ 허탈 - ㉡ 연민 ⑤ ㉠ 원망 - ㉡ 반가움

㉠은 을녀(서정적 자아)가 갑녀를 만난 반가움, 경탄 등을 나타내고, ㉡은 님(임금)이 을녀에 대해 특별히 여기는 확신, 믿음 등을 나타낸다.

정철의 ‘속미인곡’

갑녀와 을녀의 대화 형식을 빌어 입과 이별한 사연을 하소연한 내용이다. 입과 이별한 것을 오직 자신의 탓으로 돌려 아무도 원망하지 않겠다고 말한 그 속에 작자의 충절이 잘 나타나 있고, 그것이 한 여인의 지극한 사랑으로 비유되어 더욱 문학적 가치를 높여 주고 있다.

15. 글 (가)와 (나)에서 같은 내용으로 언급된 인물은?

- ⑤ 이심전심 : 마음에서 마음으로 서로 뜻을 전함.
- ① 노심초사 : 애를 쓰고 속을 태움.
- ② 적반하장 : 잘못된 사람이 도리어 잘한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를 이르는 말
- ③ 역지사지 : 처지를 바꾸어 생각함.
- ④ 자포자기 : 절망 상태에 빠져서 자신을 버리고 돌보지 아니함.

17 다음 작품의 결말 제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슨 불길한 징조인지 새벽마다 당산등에서 여우가 울어 대고, 외상 술도 먹을 곳이 없어진 농민들은 저녁마다 야학당이 터지게 모여 들었다. 그리하여 하루이침, 깨어진 징소리와 함께, 성동리 농민들은 일제히 야학당 뜰에 모였다. 그들의 손에는, 열음 못한 빈 짚단이며 콩대, 메밀대가 잡혀 있었다. 이윽고 그들은 긴 줄을 지어 가지고 차압 취소와 소작료 면제를 탄원해 보려고 묵묵히 마을을 떠났다. 아낙네들은 전장에나 보내는 듯이 돌담 너머로 고개를 내가지고 남정들을 보냈다. 만약 보광사에서 들어주지 않는다면 …… 하고 뒷일을 염려했다. 그러나 또줄이, 들깨, 철한이, 봉구 — 이들 장정을 선두로 빈 짚단을 든 무리들은 어느새 벌써 동네 뒤 산길을 더위잡았다. 철없는 아이들도 행렬의 꿈무늬에 붙어서 절 태우러 간다고 부산히 떠들어댔다.

- ① 작품의 내용을 요약하고 제언하는 방식
- ② 인물의 행동을 통하여 암시하는 방식
- ③ 상징적 묘사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
- ④ 서술자의 직접적 언술 방식
- ⑤ 객관적 서술로 여운을 남기는 방식

제시된 글은 김정한의 소설 '사하촌'의 결말 부분으로, 농민들의 소작 쟁의 행렬을 그리고 있다. 성동리 농민들이 차압 취소와 소작료 면제 탄원을 위해 벼짚단을 들고 보광사로 몰려 가는 사태와 이 가운데 철없는 아이들이 행렬의 꿈무늬에 붙어 절 태우러 간다고 부산히 떠들어대는 모습 등은 보광사에서 이들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항거로서 방화를 저질러 버릴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김정한의 '사하촌'

1936년 '조선 일보' 신춘 문예에 당선된 작품으로 김정한의 초기 대표작이다. 일제 강점기의 농촌을 배경으로 하는 이 작품은 가뭄과 무자비한 소작료로 고통을 견디다 못해 봉기한 사하촌의 농민과, 지주이자 특권 계급인 보광사 승려와의 대립을 보여 준다. 김정한은 어느 작가보다도 치열하게 농촌 사회의 현실을 현장 속에서 깊이 투시하고 있는 작가이다. 그의 문학 세계는 특별한 소설 시학적인 국면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대신에 현실을 보는 작가로서의 대담한 정직성과 고발적인 즉물성을 중시한다.

1. ④ 2. ② 3. ③ 4. ④ 5. ④ 6. ④ 7. ④ 8. ① 9. ② 10. ④
 11. ③ 12. ② 13. ② 14. ① 15. ③ 16. ⑤ 17. ②